

책 읽는 도시 전주가 탐한 작가

전주시, 10월 4일부터 전주한벽문화관서 전주독서대전 개최
내달 2일부터 홈페이지 사전 접수 후 누구나 무료 참가 가능

국가대표 책 읽는 도시인 전주시가 '2019 전주독서대전'을 통해 시민들이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작가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전주독서대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 작가들과 만나는 다채롭고 매력적인 강연들을 준비했다고 26일 밝혔다.

2019 전주독서대전은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향교 등 전주시 일원에서 '낭만을 쓰세요'를 주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오는 9월 6일 전주한벽문화관 공연장에서는 2019 전주독서대전의 사전 프로그램인 '비리 만나는 그 작가'에 한 번 붙들면 놓을 수 없는 이야기의 매력을 보여주는 정유정 작가가 초청돼 '이야기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특히 오는 10월 4일에는 전주독서대전 첫 시작을 알리는 '여는 이야기'에 '새의 선물'과 '소년을 위로해줘' 등의 작품을 통해 특유의 감수성과 예리한 관찰력으로 인간의 본성을 담아낸 은희경 작가를 초청, '책에게 말 걸기'라는 주제로 독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은 작가는 전북이 낳은 소설가로, 이날 특강을 통해 글 쓰는 과정과 8월말 출간된 빛의 과거에 대한 창작 이야기도 함께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독서대전 기간 내내 진행되는 '그 책 작가를 만나다'에서는 △정혜윤의 읽기와 쓰기를 주제로 독서 에세이 장르에 새로운 지평을 연

본인만의 읽기와 쓰기 비법을 들려준다.

둘째 날인 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천문화학이자 과학책방 '갈다'의 대표인 이명현 작가가 쉽고 재미있는 천문학, 우주 생물학에 대해 소개하고, 오후 3시부터는 2018 독립출판 1위로 선정된 '일간 이슬아' 이슬아 작가가 '연재 노동자의 기쁨과 슬픔'라는 주제로 글쓰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나아가 작가의 가족과 주변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솔직 담담한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다.

이어, 이날 오후 1시 향교문화관 강당에서는 홍성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와 김병용 소설가, 최기우 극작가와 함께 일제강점기 전주의 풍경과 전주사람들의 항일투쟁, 전주정신을 함께 읽고 만나는 '흔들'로 읽는 일제강점기 전주'가 진행된다. 또, 오후 3시 전주전통문화원수원에서는 지리산 시인이라고 불리는 박남준 시인과, 왕기석 명창, 김연 명창 등 전주의 관소리 명창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월과 전주의 풍류를 만날 수 있다.

10월 6일에는 오후 1시부터 김소연 시인과 오는 시인의 진행으로 '시를 쓰고 싶어지는 순간'을 주제로 다양한 마음산책 이야기와 시 이야기가 펼쳐지고, 송천도서관에서는 최근 동시작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노래하는 시인 김창완 작가가 초청돼 '동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2019 전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블꿈에게 잡혀간 우리 아바 △산책을 듣는 시간 △당신이 반짝이던 순간의 작가들을 초청해 올해 전주에서 큰 사랑을 받은 책과 그 작가와의 뜨거운 만남도 준비되어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전주독서대전에 참가한 11개 출판사에서 △박예분 △윤일호 △권민희 △



김선남 △김수정 △김완수 △노경실 △미우 △박영길 △박정섭 △백미숙 △서안정 △소중 △이미숙 △이민숙 △이지선 △카타르(터키 미술작가) △한유진 등 총 18명의 작가를 초청한다.

이외에도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한편 동화작가 육아·자녀교육 전문가인 서정안 작가 등이 자신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강연을 펼치고, 미우 작가는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과 꿈 그림책 1인 공연을 펼치게 된다.

모든 강연은 9월 2일부터 '전주독서대전' 공식 홈페이지(<http://jbook.kr>)를 통해 사전 접수 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강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 완산도서관 책읽는도시팀(063-230-18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 작가들과 함께하는 '2019 전주독서대전'은 다채롭고 입체적인 강연들로 채워질 예정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국의 성악 애호가, 순창에 모인다

10월 4일~5일 이틀간 순창 향토회관에서 성악 콩쿠르 개최

순창군이 오는 10월 4일 성악에 관심 있는 전국의 아마추어부터 성악 전공자들이 펼칠 화려한 경연을 준비한다.

군은 '제1회 순창 전국 성악 콩쿠르'를 오는 10월 4일과 5일 양 이틀간 순창 향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스페이스 P가 주최·주관하고 순창군과 사단법인 호남오페라단이 후원한다.

올해 첫 회를 맞는 이번 콩쿠르 대회는 전국규모의 미술대전 개최에 이어 음악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문화도시를 꿈꾸는 순창군의 의지가 많이 담겼다.

군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개최하게 된 이번 콩쿠르는 총 상금 2천만원 규모로 유초 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합창, 아마추어 일반부로 나눠 진행된다.

각 부문별 1위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을 망라한 대상에게는 7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특히 전체 수상자에게 호남오페라단의 다음연도 오디션과 기획연주회 오디션 참여 우선권이라는 특전까지 부여된다.

예선은 각 부문별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순창=이영원기자

본선은 5일 공개심사로 진행된다. 심사가 끝나고 각 부문별 대상전 및 축하공연도 같은 날 저녁 7시에 펼쳐질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만 35세 이하이고, 아마추어 일반부는 나이제한이 없다. 참가 접수는 오는 9월 30일까지며 순창 전국 성악 콩쿠르 홈페이지(www.sunchangconours.com)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대회 주최 측인 스페이스 P 관계자는 "성악 콩쿠르를 통해 재능있는 꿈나무를 발굴하고 신인 성악가와 성악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꿈과 자아를 실현하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승주 순창군수는 "최근 우리군에서 뮤지컬, 연극, 국악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공연이 군민들의 많은 사랑속에 개최되면서 문화향유기회 확대는 물론 문화행사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성악 콩쿠르에도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정읍시청 분수광장서 버스킹 공연 '열기 후끈'

정읍시청 분수광장이 동호인들의 흥겨운 음악과 댄스, 합창 공연 등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정읍시청 분수광장에서 낭만과 흥이 가득한 버스킹 공연이 이어져 시민들에게 시원하고 풍요로운 여름밤을 선물했다.

이번 버스킹 공연은 바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획됐다.

공연에는 H 댄스 스튜디오(셀위댄스)와 아랑고장구, SKY 밴드, D.A.B 합창그룹 등이 재능기부로 출연해 각기 색다른 콘셉트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바쁜 일상을 끝내고 시청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음악과

휴식을 제공하고, 수준 높은 연주와 함께 신나는 댄스와 노래로 흥을 더했다.

특히, 댄스스포츠 중등부 한국 챔피언이자 전북 대표선수들로 구성된 H 댄스 스튜디오(셀위댄스)팀과 신명나는 장단으로 흥을 돋운 아랑고장구팀의 무대는 시민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을 관람한 한 시민은 "작지만 알찬 공연으로 시원한 분수광장에서 낭만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공연이 자주 이어져 지친 일상에 활력을 주는 행복 에너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을 주관한 (사)나누매기 박두산 대표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해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적 혜택



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정읍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0일에도 정읍시청 분수광장에서 수준 높은 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오늘부터 '겨루기와 성장하다' 기획전시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이상욱)은 태권도원 내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태권도, 겨루기와 성장하다' 기획전시를 가진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이번 기획전시는 우리나라의 전통무예인 태권도가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는 무예이자 스포츠가 될 수 있었던 과정을 국내·외 대표적인 겨루기 대회를 통해 조명한다.

또한,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전국체육대회와 지난 5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2019년 영국 맨체스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같이 국내·외 주요 태권도 대회의 실제 메달과 상장, 기념품 등도 전시한다.

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이번 기획전시는 무예로서 즐기던 태권도가 스포츠종목으로 경기화되는 과정을 쉽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흔치 않은 기회이지만 큰 태권도원을 찾으면 기획전시실을 꼭 방문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기획전시는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20년 5월 10일까지 진행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s://www.tpf.or.kr/t1/main/index.do>)와 국립태권도박물관 홈페이지(<https://museum.tkdwo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